

전경련, 신 성장동력포럼 11월9일 출범

전국경제인연합회는 5년 후, 10년 후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 전문가 는 물론 기업 연구소, 학계,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<신 성장동력포럼>을 11월9일 출범 시키기로 했다.

전경련 이윤호 상근부회장은 “현재 한국경제의 샌드위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것이 경제계의 최대 고민이다”며 “정부나 기업 모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”라고 <신 성장동력포럼> 창설 계기를 밝혔다.

<신 성장동력포럼>에서는 회원들이 매월 한번씩 정례적으로 모여 세계경제의 미래 트렌드, 신 성장동력, 미래 유망산업 등에 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 할 방침이다.

한국의 10대 성장동력

성장동력	주요 Item
디지털 TV·방송	방송시스템, DTV, DMB
디스플레이	LCD, LED, OLED 등
지능형 로봇	가정용, 의료지원 로봇 등
미래형 자동차	지능형, 친환경 자동차
차세대 반도체	차세대 메모리, SoC 등
차세대 이동통신	4G, 텔레매틱스
지능형 홈네트워크	홈네트워킹, 지능형정보가전
디지털 콘텐츠·SW 솔루션	콘텐츠, 내장형 SW 등
차세대 전지	2차전지, 연료전지
바이오 신약·장기	바이오 칩, 인공장기, 신약

또한 IT·BT·NT 등 신기술 및 융합산업, 고 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, 친환경 및 신·재생 에너지산업, 바이오 및 실버산업 등 신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.

이에 따라 11월9일 오전 경제인클럽(전경련회관 20층)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<10년 후,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?>, <신 성장동력 발굴방안>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.

포럼에는 김 윤 삼양사 회장, 이윤호 전경련 부 회장,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원 원장, 정성철 한국과

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, 조완규 바이오산업협회 회장, 최재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, 전상인 서울대 교수, 정경원 KAIST 교수 등 각계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1/07>